P－4 임산부의 치주질환 활성도와 조산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

최은정
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연구 목적

분만 전후의 산모의 구강 검사를 통하여 치주질환 활성도 측정으로서 치주낭 깊이, 부착상실도, 치은지수, 치은 열구액양 및 치은연하치태내 치주 병인균 검정 등을 통하여 치주질환 활성도의 각각과 조산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.

연구 방법

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한 분만 전후의 산모 100명(평균 30.44세)을 대상으로 구두 동의를 받은 후 산모의 분만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하였고, 실험에 참여한 모든 산모들의 분만결과를 조사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였다.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조산한 경험이 있거나 이번에 조산한 산모들을 합하여 실험군으로, 조산한 경험이 없고 이번에도 정상 분만한 산모들을 대조군으로 정하고, 두 번째는 이미 조산한 경험과는 상관없이 이번에만 조산한 산모들을 실험군으로, 그리고 이번에 정상 분만한 산모들을 대조군으로 하였다. 각 환자의 대상 치아는 Ramfjord(#16, 21, 24, 36, 41, 44)의 치아로 정하고 임상검사로 치은 지수, 치주낭 깊이, 부착 상실도, 치은열구액양 측정을 실시하였다. 세균검사는 환자당 가장 깊은 치주낭에서, #35 paper point 3개를 얻어 혐기성 세균과 호기성 세균을 배양 후 수를 관찰하고, 또한 paper point 1개를 얻어 간접 면역형광법에 의한 세균 동정을 통해 P. gingivalis, P. intermedia, A. actinomycetemcomitans의 수를 관찰한다.

연구 결과

조산과 치주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임상검사와 치은연하치태세균 검사를 함께 시행한 본 연구에서는 치주낭 깊이와 부착상실도에서 조산한 산모가 정상 분만한 산모보다 더 큰 값을 가져서 치주질환이 조산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고 치은연하치태세균 검사시 혐기성 세균의 수가 증가한 사실도 치주질환의 활성도와 조산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.